

#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와 의복의 조형성에 따른 이미지 평가

## Image Evaluation according to Formative Properties of Hat and the Garment in the Fashion Collection

정해선 · 강경자 · 정수진\*

한국 폴리텍 I 대학 패션디자인과 ·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Hae-Son Jeong · Kyung-Ja Kang · Su-Jin Jeong\*

Dept. of Fashion Design, Korea Polytechnic I colleg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age according to formative properties of hat and garment in the fashion collection. For the study, the 96 stimuli found frequently in fashion collection from the S/S season of 1998 to the F/W season of 2004 were selected. Sets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 (7 point semantic) were used as experimental materials. The stimuli were 96 pictures with the types of hat(4), the lengths of hair(3), the types of garment(3), the relations between the color of garment and hat(4), and the materials(4) and patterns of garment(2). The subjects were 415 women college students majoring fashion design related fields and living in Seoul and Gyeongsangnam-do. As statistical methods for data analysis, Factor Analysis, ANOVA test, and LSD test were used.

The items of the adjectives were classified into 5 image dimensions; attractiveness, gracefulness, concentration, cuteness, and hardness and softness. Among these factors, each dimensional image was affected by formative properties of hat and garment. The image of a hat-wearer was perceiv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hair style and the formative properties of hat and garment even if the type of hat was same.

Key Words : fashion collection, formative properties, fashion image, image evaluation

### I. 서론

오늘날 현대패션에서는 패션이미지를 자유롭게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액세서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패션 코디네이션 아이템으로 구두나 핸드백, 모자가 부각되고 있다. 그 중 모자는 가장 시선을 집중할 수 있고 개성표현에 적합한 복식요소로 모자를 착용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컬렉션을 통해 발표되는 전 세계의 패션트렌드 정보는 TV, 잡지, 인터넷을 통한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시간간의 제약 없이 얻을 수 있으며 패션트렌드는 패션업계에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예측하는데 반영된다. 매년, 매 시즌 발표되는 컬렉션을 통해서 보면 모자를 착용한 스타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내 패션분야의 연구에서 모자착용자의 이미지 평가

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다. 이미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로 의복형태와 관련된 연구(이주현, 강혜원, 1995; 이주현, 조궁호, 1995; 이웅휘, 강경자, 1997; Thurston, Lennon & Clayton, 1990), 의복의 색채와 관련된 연구(차미승, 1992; 김윤경, 강경자, 2003; 최수경, 강경자, 2004; Winakor, Navarro, 1987) 의복의 소재 및 무늬에 관련된 연구(박수진 외, 1997; 김미지자, 1996; 김윤경, 이경희, 2000; 오혜순, 이경희, 2002; 추선형, 김영인, 2002; Yukie Kato, 1995) 외에 헤어스타일에 관련된 연구(도주연, 1991; 김양휴, 1996; 윤지성, 2000; 임남영, 강승희, 2003; Terry & Davis, 1976; Pancer & Meindle, 1978) 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 연구자에 따라 사용된 변수들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의복의 세부적 변인들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의복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용한 변수들에 의한 착용자의

\* Corresponding author: Su-Jin Jeong  
Tel: 055) 742-6881, Fax: 055) 753-9030  
E-mail: jini5980@hanmail.net

인상이나 이미지 차원을 도출하였다.

모자는 얼굴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디테일 못지않게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본다. 모자스타일의 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모자종류, 의복형태, 색상, 헤어스타일, 재질, 무늬 등 여러 요소들이 있으며 이들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 모자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먼저 모자와 헤어스타일을 관련시켜 이미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모자유형과 모자색, 상의색이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모자를 착용한 패션스타일에 관한 이미지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코디네이션 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관련 외모변인들 즉, 모자종류, 헤어길이, 의복형태, 의복과 모자의 색상, 재질, 무늬에 의한 조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8~2004년 사이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스타일을 중심으로 사진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이들 변인들에 의해 패션스타일에 나타난 조형적 요소들이 모자 착용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 그 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에 의해 모자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들 자료는 모자와 의복의 조형요소들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복식 산업체에서 상품기획이나 액세서리 트렌드 예측 시 토털 패션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모자

모자는 초기 실용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장식성이 강해져 왔으며, 토털 코디네이션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에 와서는 패션쇼(fashion show), 모드(mode)의 발표, 디스플레이(display)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이경순 외, 1998).

모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서희정(2000)은 모자디자인의 특성과 시대적 배경에 관한 연구에서 패션디자인과 모자디자인의 시대적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대체적으로 패션스타일이 과감한 동적인 실루엣이 되면 모자디자인도 형태의 과장이나 강한 장식성을 띠고, 패션스타일이 미니멀 해지고 심플한 경향일 경우 모자디자인도 사이즈가 작아지고 장식이 절제된 디자인으로 나타나 패션스타일과 모자디자인은 시대적으로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있

다고 밝혔다.

모자의 색상과 관련된 김경희(1990)의 연구에서 모자의 색상은 화려한 색보다 어두운 색상인 검정이나 회색, 갈색의 색상이 많고, 모자 그 자체로서 표현되기 보다는 의복과 같이 이용되고 있어 현재 유행하는 의복의 색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박혜경(1991)의 연구에서는 무채색과 유채색의 비율 중 유채색이 72.5%로 나타났다. 이는 유채색의 종류가 다양하고 무채색은 흰색, 회색, 검정색으로 나누어 보았기 때문에 무채색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으며, 모자의 배색에 있어서는 단색조화, 유사색, 다색, 대비색 순으로 나타났다.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모자의 색상 선택에서는 의복과 동색 계통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자, 1976).

모자와 관련된 인상연구로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모자종류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해선, 강경자(2004a)의 연구에서 매력성 요인, 품위성 요인, 명쾌성 요인, 주의집중성 요인, 귀엽성 요인의 5개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헤어스타일, 헤어길이, 모자종류가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 다른 상의색, 모자색, 모자종류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정해선, 강경자, 2004b)에서 단서로 사용된 모자종류(베레, 클로시, 볼러, 캐플린), 모자색상(빨강, 파랑, 베이지, 회색), 상의색(모자와 이색 또는 동색)에 대한 모자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분석한 결과 주의집중성요인, 매력성요인, 품위성요인, 활동성요인, 은유성요인의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상의색, 모자색, 모자종류가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세 변인은 상호작용으로 각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변인 중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매스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유행 및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한 복식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사람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소의 한 부분으로 사회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외모를 좌우하는 요소로 패션과 함께 헤어스타일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Terry와 Davis(1976)에 의하면 얼굴 매력은 입, 눈, 얼굴구조, 헤어, 코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여 헤어스타일이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Pancer와 Meindle(1978)은 헤어길이가 성격에 대한 인상

에서 주목할 만한 효과를 가져서 긴머리의 남자는 짧은 머리의 남자에 비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도주연(1991)은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연구에서 스트레이트는 수수하고 자연스럽고 청순한 이미지를 주고 웨이브는 촌스럽고 성숙한 이미지를 주며 짧은 머리는 도시적이고 남성적이며 중간머리는 촌스럽고 평범하며, 긴머리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영미(1997)는 헤어스타일과 넥라인이 얼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넥라인에 따른 얼굴이미지를 살펴보면 라운드, 브이, 보트, 스퀘어, 하이 넥라인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는 긴 웨이브나 미디움 웨이브 머리에서 개성적, 여성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고, 앞머리를 내린 긴 스트레이트와 미디움 스트레이트에서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와 단정한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긴 스트레이트와 컷머리에서는 지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김양휴(1996)는 패션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정서적이고 비공격적 성향인 강인성 차원에서 긴 스트레이트의 부분 염색한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고, 쇼트 스트레이트의 전체 염색한 스타일을 가장 싫어하였으며, 내향성일 경우는 웨이브 쇼트의 염색 안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웨이브의 긴머리로서 부분 염색한 스타일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는 웨이브 쇼트의 염색 안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쇼트 스트레이트의 전체 염색을 부정, 자신의 감정 노출을 억제하는 허위성 차원에서는 웨이브 쇼트의 염색 안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웨이브 긴머리의 부분염색을 가장 싫어하였다.

윤지성(2000)의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같은 헤어스타일이라도 헤어 컬러의 변화와 의복색의 변화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었고, 의복형의 변화에 따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 또한 다르게 나타났으며, 임남영, 강승희(2003)는 남성의 의복 유형과 헤어스타일에 따라 품위, 활동성, 개성, 사교성 차원으로 분류하고, 인구통계적 변인(성별, 역할), 의복유형, 헤어스타일에 따라 인상이 다르게 지각됨을 밝혔다.

### 3. 의복의 조형적 요소

의복스타일을 이루는 조형적 측면은 주로 형태, 색채, 소재, 무늬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의복형태 및 색상에 따른 이미지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Winakor와 Navarro(1987)는 의복 색의 명도(어두운, 중간, 밝은)와

의복 종류(드레스, 슈트, 스포츠웨어)에 따라 착용자에 대한 호감 정도를 평가한 결과 의복의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의복종류는 더 체계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Thurston 외(1990)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전문적 이미지가 의복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원피스보다 슈트가 전문적 이미지가 높았고 최신유행 장식이 일반유행 장식, 클래식 장식보다 전문적 이미지가 낮게 평가되었다. 차미승(1992)은 의복형태와 의복색채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를 분석한 결과, 현시성, 귀염성 요인에서는 의복형태와 상관없이 파랑과 보라색 의복은 중후하고 어른스러운 것으로, 노란색 의복은 발랄하고 귀여운 것으로, 빨간색 의복은 화려하고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무채색 의복은 유채색 의복보다 긍정적이고 덜 활동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주현, 강혜원(1995)은 슈트, 드레스, 블라우스·팬츠를 중심으로 의복착용자가 관찰자에게 주는 인상차원을 연구한 결과 의복종류에 따라 인상형성의 평가가 달랐으며 의복착용자의 인상은 능력·활동성, 품위, 주의집중성, 평가·매력, 깔끔함의 5개 차원으로 도출되었고, 이주현, 조금호(1995)는 짧은 스커트의 슈트 착용자는 긴 스커트의 슈트 착용자보다 더욱 능력적이고 활동적이며, 덜 사무적이고 더 어려보이며, 더 화려하고 눈에 띄며, 더 호감이 가고 매력적이며, 더 밝고 깔끔한 사람으로 지각되어 스커트 길이는 슈트 착용자의 인상에 중요한 의상디자인 요소라 하였다. 이응휘, 강경자(1997)는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스커트 착용자는 어려보이나 품위없고 지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폭이 넓고 길이가 긴 스커트 착용자는 더 성숙해 보이고 드레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커트 길이에 관계없이 폭이 좁은 경우에는 어려보이고 매력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山野清一郎 외(1980)는 의복디자인에 있어서 의복의 구성선 보다는 색채효과가 의복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加藤雪技(1982)는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피복형태와 색채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형태보다 색채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으며 피복에서의 감정효과는 평가, 활동, 역량, 따뜻함, 날씬함의 인자로 나타났는데 평가, 활동, 날씬함의 인자는 형태와 색채가 모두 관련이 있으며 역량과 따뜻함의 인자는 색채가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윤경, 강경자(2003)는 의복스타일별 지각 차는 무채색보다 유채색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의복스타일 보다 의복색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포멀 스타일은 대부분 톤 조합에서 매력적이라고 지각하였으며, 톤 조합에 따라 지각차가 작은 반면 캐주얼 스타일은 지각차가 크게 나타났다. 박화순(1995)은 착용자의 내적 표현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성격 등을 구별해주며 적절한 색채의 의복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알맞은 외모를 가꾸어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의복에 표현된 색상은 의복착용자에 대한 지각과정에서 심리, 생리적으로 작용하여, 색이 가진 이미지에 의해 의복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디자인, 색채와 함께 의복의 재질은 의류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게 되었으며, 의복에 사용되는 소재의 느낌은 심리적인 요소로 소재에 따라 고상한, 혹은 쾌활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다. Davis(1990)는 세 가지 똑같은 형태의 의복이 다른 소재로 만들어졌을 경우, 그 의복들이 세 가지의 다른 분위기를 전달한다고 하여 소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박수진 외(1997)는 직물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감성어휘모형의 연구에서 직물의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는 색채와 패턴의 영향을 받으며 간접적으로 소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김미지자(1996)는 소재의 색채와 감성에 관한 연구에서 소재의 시각적 질감과 촉각적 질감에 의한 이미지를 각각 분석한 결과 시각적, 촉각적 질감간의 차이가 별로 없었으며 시각적 질감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촉각적인 질감을 결정하는 요소보다 시각적인 질감을 결정짓는 요소가 더 다양하다고 해석하였다. 오해순, 이경희(2002)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복재질의 시각적 감성의 구성요인과 의복재질에 따른 시각적 감성차이, 시각적 감성의 포지셔닝과 선호도, 구매욕구와 쾌감에 있어 감성어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추선형, 김영인(2002)은 색채와 질감에 의해 패션소재를 분류하고 소재 이미지 종류를 분석하여 분석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패션소재의 질감이 각 이미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규명하였다.

의복에 있어 무늬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무늬를 보았을 때 갖는 느낌은 무늬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모티브의 선과 형태, 모티브의 크기, 모티브와 배경과의 면적비, 모티브와 배경색채와의 배색관계, 옷감 또는 착용자를 보는 거리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모티브와 배경과의 색채대비 정도가 무늬의 성격을 크게 좌우하여 모티브와 배경의 색채가 유사할 때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주게 된다(이은영, 1983).

Yukie Kato(1995)는 패턴의 색채와 디자인이 인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무채색과 유채색이 주는 차이를 비교한 결과, 활동성 요인과 평가 요인에 대해서는 공통성을 보였으나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공통성을 보이지 않았다. 세 가지 색의 본질적 요소는 능력 요인과 화려함 요인에, 디자인은 활동성 요인에, 색채와 형태는 평가 요인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밝은 톤 대신에 둔한 톤일 경우 무늬형태가 활동성 요인과 평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경, 이경희(2000)는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연구에서 의복무늬에 대한 시각적 감성차원, 의복무늬의 구성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시각적 감성차이, 시각적 감성 연구에서 의복무늬에 대한 시각적 감성차원, 의복무늬의 구성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시각적 감성차이, 시각적 감성의 포지셔닝과 선호도, 구매욕구, 쾌감, 고급감과 감성어휘와의 단계적 관계를 밝힘으로서 시각적 감성에 대한 객관적 규명을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에 따라 의복의 조형요소들 즉, 형태, 색채, 재질, 무늬 등에서 사용한 변수가 차이는 있으나 이들 변인들이 패션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조형요소들이 모자와 함께 코디네이트 될 때 모자종류별로 어떤 이미지로 표현되는지 그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모자와 패션이미지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힌다.

<연구문제 2> 모자종류별 조형성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밝힌다.

#### 2. 실험절차 및 방법

#####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1998년 S/S 부터 2004년 F/W까지의 5대 컬렉션에 발췌된 패션사진을 Gap Press, Fashion News, Book Moda, Book Moda Collezioni, Collection, Collezioni Donna 등의 잡지를 조사하여 디자이너들의 작품 중 모자를 착용한 1,391점을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의 내용분석 연구결과 모자의 종류는 년도, 시즌에 관계없이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타난 순서로 베레(Beret), 클로시(Cloche), 볼러(Bowler), 캐플린(Capeline)의 4가지 종류로 분류하였고, 헤어질이는 정혜선, 강경자(2004a)의 연구를 중심으로 쇼트, 미디움, 롱의 3가지로 하였다. 의복의 형태는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상의/스커트, 상의/슬랙스, 원피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의복과 모자의 배색은 의복과

모자종류	동색		이색	
	무채색	유채색	유사배색	대비배색
베레 (Beret)				
클로시 (Cloche)				
볼러 (Bowler)				
캐플린 (Capeline)				

[그림 1] 모자종류에 따른 자극물 사진

모자의 색상이 동색인 경우(2)는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의복과 모자의 색상이 이색인 경우(2)는 배색된 색상 간의 차이가 적은 유사배색과 색상차이가 많이 나는 대비배색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모자와 의복에 사용된 시각적 재질은 오해순, 이경희(1999), 김유진(2002)의 연구를 중심으로 표면이 거칠어 보이는 트위드, 홈스펀, 헤링본이나 뺏뺏한 태피터 그리고 형태가 잘 잡히고 힘 있어 보이는 개버딘, 머슬린, 면, 펠트, 쿨 울, 마 등은 딱딱한 것으로, 기모가 있거나 파일이나 보풀이 있는 아스트라칸, 벨벳이나 벨베틴, 부드럽게 늘어지는 저지류 등은 부드러운 것으로, 얇아서 비치는 오간자, 오건디, 시폰, 레

이스 등을 비치는 것으로, 변들거리거나 광택이 나는 브로케이트나 코팅류, 부드러운 광택이 나는 실크류는 광택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딱딱한(Hard), 부드러운(Soft), 비치는(Transparent), 광택나는(Brilliant)의 4가지로 분류하고, 의복의 무늬는 무늬가 없는 무지와 무늬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조형성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조작하였다. 전체 사진 자료 중 본 연구의 기준에 적합한 96개의 자극물을 Data Base를 통해 선별한 후 선별된 자극물이 컬렉션 때마다 변화되는 배경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Photoshop 7.0 program을 이용하여 중간 명도의 회색으로 처리하여 통제시켰다. 또한 모델들의 얼굴에서 오는 인상이 이미지 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얼굴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96개 자극물 중 모자 종류별 대표적인 사진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2) 실험설계

패션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자종류(4)를 기준으로 하여 배색된 색상(4) 별로 헤어길이(3), 재질(4), 무늬(2)가 모두 포함된 의복형태(3)를 각각 2가지씩 선정하여 총 96개(4×4×(3×2))의 자극물이 선정, 조사 되었으며, 자극물 조작 내용은 <표 1> 같다.

96개의 자극물을 3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한사람이 3개의 자극물을 보고 평가 하도록 하였다. 이때 피험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에 의한 순서 효과를 고려하여 한 사람의 피험자가 모자종류가 각기 다른 3개의 자극물을 평가하도록 조작하여 제시하였다. 하나의 자극물을 12명씩 평가하였다.

3)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의복 및 헤어의 대인지각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한 형용사와 컬렉션에서 나타난 의복전체 이미지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를 추가하여 34쌍의 형용사쌍 중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 한 후 인상평가 어휘로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형용사쌍을 제외하고 31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표 1> 자극물의 조작분류

모자종류		헤어길이		의복형태		의복과 모자의 색상		재질		무늬	
베레	1	쇼트	1	원피스	1	동색	무채색	1	딱딱한	1	무
클로시	2	롱	2	상의 /스커트	2		유채색	2			
볼러	3	미디움	3	상의 /슬랙스	3	이색	유사배색	3	비치는	3	유
캐플린	4						대비배색	4			

자료를 수량화하기 위해 각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우측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1점을 주어 7단계 평정법으로 평가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피험자는 서울,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패션디자인 관련 여대생을 선정하였으며 평가는 총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400부를 회수하였으나 이중 미비한 자료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84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4년 8월 19일~9월 4일에 이루어졌다.

모자종류, 헤어길이, 의복형태, 의복과 모자의 색상, 재질, 무늬에 따른 이미지 차원에 대한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하였다. 도출된 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해 본 결과 총 31개 형용사쌍에 대해  $\alpha=.82$ 이며,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이 있게 평가되었다.

도출된 각 인상요인들 즉,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 귀염성, 경연성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99, .88, .88, .74, .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 수행에 따른 분석 방법으로 요인분석,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으로 LSD 검증(최소유의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모자와 패션이미지의 요인구조

모자와 패션이미지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패션컬렉션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모자 4가지 베레, 클로시, 볼러, 캐플린을 기준으로 의복형태, 의복과 모자 색상과의 배색관계, 모자종류, 헤어길이, 의복과 모자의 재질과 무늬의 유무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총 96개의 자극물에 대한 이미지 차원을 밝히기 위해 31쌍의 형용사 쌍을 평정한 자료를 주성분모형과 Varimax방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 아이겐값 1.0 이상으로 하여 형용사쌍들이 5개 요인으로 묶이어서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2> 와 같다.

요인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7.5%로 5개 요인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보기좋은-보기 싫은 세련된-촌스러운, 좋아하는-싫어하는, 매력 있는-매

력 없는, 멋있는-멋없는, 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 자연스러운-어색한의 7개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2는 정숙한-정숙하지 못한, 차분한-차분하지 않는, 단정한-단정하지 않는, 지적인-지적이지 않는, 품위 있는-품위 없는, 안정된-불안정한, 우아한-천박한, 깨끗한-지저분한, 이성적인-감성적인, 청순한-요염한의 10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품위성이라 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5.0%로 나타났다. 품위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이경희(1991)의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윤소영(2001)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 관련 요인, 임남영, 강승희(2003)의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인상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품위성 요인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3은 대담한-소심한, 강한-약한, 화려한-수수한, 특이한-평범한, 외향적인-내향적인, 강렬한-은은한, 자신감있는-자신감없는 으로 7개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현시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현시성 요인의 구성인자의 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15.0%로 품위성 요인과 비슷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요인4는 귀여운-성숙한, 스포티한-드레시한, 어려보이는-나이 들어 보이는, 경쾌한-중후한의 4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귀염성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해 8.1%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5는 부드러운-딱딱한, 따뜻한-차가운, 여성스러운-여성스럽지 않는 3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경연성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해 7.1%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김애경(2003)의 Head Image의 패션감성에 대한 평가에서의 여성성 요인인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매력성 요인에서는 보기 좋고 세련되고, 좋아하며, 매력있고, 멋있고 어울리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품위성 요인에서는 정숙하고, 단정하고, 차분하고, 지적이며, 품위있고, 안정되고, 우아하고 깨끗하며, 이성적이고 청순한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대담하고 강하고, 화려하며, 외향적이고 특이하며 강렬하며, 자신감 있는 것으로, 귀염성요인에서는 귀엽고 스포티하며 어려보이고 경쾌한 것으로, 경연성 요인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여성스럽게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5개의 이미지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8%로 나타났고, 귀염성, 경연성을 제외한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 등 3가지 요인은 각 요인별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2> 모자와 패션이미지 요인분석

	요인1 매력성	요인2 품위성	요인3 현시성	요인4 귀염성	요인5 경연성	공통성 (h <sup>2</sup> )
보기좋은-보기싫은	.836	.257	.031	.052	.106	.780
세련된-촌스러운	.820	.103	.206	-.018	-.015	.727
좋아하는-싫어하는	.807	.153	.044	.091	.126	.702
매력있는-매력없는	.805	.022	.154	.018	.085	.680
멋있는-멋없는	.799	.141	.273	-.043	.035	.735
어울리는-어울리지않는	.746	.271	.098	.089	.031	.648
자연스러운-어색한	.680	.216	-.001	.182	.192	.579
정숙한-정숙하지못한	.071	.736	-.295	-.005	.076	.640
차분한-차분하지않는	.117	.694	-.382	-.172	-.015	.671
단정한-단정하지않는	.179	.693	-.264	-.013	-.018	.583
지적인-지적이지않는	.372	.687	-.079	-.264	-.024	.687
품위있는-품위없는	.328	.677	-.032	-.273	.095	.651
안정된-불안정한	.236	.664	-.272	.017	.050	.574
우아한-천박한	.334	.589	-.097	-.213	.298	.603
깨끗한-지저분한	.420	.578	-.085	.042	.072	.524
이성적인-감성적인	-.058	.527	.183	.002	-.374	.455
청순한-요염한	-.141	.470	-.398	.260	.259	.533
대담한-소심한	.137	-.189	.799	-.032	-.031	.694
강한-약한	.058	-.034	.749	-.044	-.275	.643
화려한-수소한	.132	-.314	.739	-.033	.163	.689
특이한-평범한	-.072	-.230	.723	.013	.093	.589
외향적인-내향적인	.167	-.218	.720	.188	-.118	.644
강렬한-은은한	.078	-.110	.707	-.002	-.284	.599
자신감있는-자신감없는	.354	.019	.647	-.013	-.066	.549
귀여운-성숙한	.022	-.105	-.122	.799	.137	.684
스포티한-드레시한	-.021	-.056	.027	.742	-.279	.633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206	-.053	.013	.731	.213	.626
경쾌한-중후한	.217	-.252	.363	.552	.237	.603
부드러운-딱딱한	.227	-.044	-.157	.169	.721	.626
따뜻한-차가운	-.039	.096	-.131	.168	.669	.503
여성스러운-여성스럽지않는	.308	.115	.021	-.202	.658	.583
고유치	5.433	4.651	4.640	2.509	2.203	19.436
전체변량의 %	17.525	15.002	14.967	8.095	7.105	62.694
공통변량의 %	27.953	23.929	23.873	12.912	11.333	100.00

2. 모자종류별 조형적 요소에 따른 이미지 차이

모자 종류별로 헤어길이, 의복형태, 모자와 의복의 배색, 재질이미지, 무늬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3>~<표 22>와 같다.

1) 베레의 이미지 차이

모자종류가 베레인 경우 헤어길이, 의복형태, 모자와 의복의 배색, 재질, 무늬 순으로 고찰하면 <표 3>~<표 7>과 같다. <표 3>의 모자종류가 베레인 경우 헤어길이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보면, 현시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헤어길이가 쇼트인 경우 품위있고 성숙해보이고 딱딱한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헤어길이가 미

디움인 경우는 매력있고 드레시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길이가 롱인 경우는 매력있고 귀엽고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헤어길이에 따라 매

<표 3> 베레의 경우 헤어길이에 따른 이미지 차이

헤어길이 요인	쇼트	미디움	롱	F
매력성	0.08 <sup>b</sup>	0.40 <sup>a</sup>	0.38 <sup>a</sup>	4.17*
품위성	0.04 <sup>a</sup>	-0.19 <sup>a</sup>	-0.55 <sup>b</sup>	12.37**
현시성	0.19	0.21	0.33	0.79
귀염성	-0.13 <sup>b</sup>	-0.15 <sup>b</sup>	0.36 <sup>a</sup>	9.57**
경연성	-0.44 <sup>b</sup>	0.09 <sup>a</sup>	0.11 <sup>a</sup>	13.49**

\* : p < .05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력성과 품위성 차원에서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베레 모자를 쓸 때 헤어길이가 미디움이거나 롱으로 길면 매력있고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헤어길이가 쇼트이면 품위있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베레 모자를 쓸 경우 의복형태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4>에서 보면 품위성과 귀염성, 경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복형태가 원피스인 경우에는 품위는 없으나 드레시하고 성숙해보이며 부드러운 이미지로 나타났다, 상의/스커트인 경우는 품위없고 상의/슬랙스인 경우는 딱딱한 이미지로 지각되는 차이를 보였다. 즉 베레 착용시 상의/슬랙스 차림일 경우 품위있고 스포티하고 딱딱한 이미지로, 상의/스커트를 입으면 귀엽고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것으로, 원피스 차림일 경우는 성숙하고 드레시하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베레 모자를 쓸 경우 의복과 모자 색상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5>에서 보면 매력성, 현시성, 경연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복과 모자가 동색일 경우 유채색보다 무채색일 때 더 매력있고 세련된 이미지로 지각되고 유채색의 동색이 무채색의 동색보다 더 대담하고 화려하며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이색의 유사배색일 경우는 대비배색일 때 보다 더 매력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비배색인 경우는 수수하고 소심하며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즉 베레 모자를 쓰고 모자와 의복의 배색을 동색인 무채색이나 이색인 유사배색으로 하면 매력있는 이미지로, 모자와 의복의 배색을 동색인 유채색으로 하면 화려한 이미지로, 이색의 유사배색일 경우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베레 모자를 쓸 경우의 경우 재질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6>에서 보면 경연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베레 모자를 쓸 경우 소재의 특성에 상관없이 매력있고 현시적인 이미지와 품위없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특히, 재질은 매력적인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치는>부드러운>딱딱한>광택나는 순으로 나타났고, 품위성 요인에서는 재질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부드러운>비치는>딱딱한>광택나는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드럽고 비치는 재질을 선택하면 매력있는 이미지로, 광택나거나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면 보다 대담하고 화려하고 강렬한 이미지로,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면 가장 귀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베레 모자의 경우 무늬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7>에서 보면 품위성과 귀염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무늬가 없는 경우보다 있을 때 더 품위없는 이미지로, 무늬가 있는 경우에 더 귀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표 4> 베레의 경우 의복형태에 따른 이미지 차이

의복형태 요인	원피스	상의/ 스커트	상의/ 슬랙스	F
매력성	.30	.11	.36	1.94
품위성	-.44 <sup>b</sup>	-.28 <sup>b</sup>	.05 <sup>a</sup>	7.21 <sup>**</sup>
현시성	.22	.14	.33	2.13
귀염성	-.30 <sup>b</sup>	.23 <sup>a</sup>	.22 <sup>a</sup>	10.09 <sup>**</sup>
경연성	.05 <sup>a</sup>	.03 <sup>a</sup>	-.45 <sup>b</sup>	10.13 <sup>**</sup>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표 5> 베레의 경우 의복과 모자 색상에 따른 이미지 차이

색상 요인	동색		이색		F
	무채색	유채색	유사배색	대비배색	
매력성	.55 <sup>a</sup>	.06 <sup>b</sup>	.41 <sup>a</sup>	.02 <sup>b</sup>	6.25 <sup>**</sup>
품위성	-.09	-.38	-.23	-.21	1.15
현시성	.02 <sup>b</sup>	.66 <sup>a</sup>	.03 <sup>b</sup>	.28 <sup>b</sup>	9.80 <sup>**</sup>
귀염성	-.07	.23	-.04	.07	1.46
경연성	-.29 <sup>bc</sup>	-.41 <sup>c</sup>	.26 <sup>a</sup>	-.04 <sup>b</sup>	8.48 <sup>**</sup>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표 6> 베레의 경우 재질에 따른 이미지 차이

재질 요인	딱딱한	부드러운	비치는	광택나는	F
매력성	0.20 <sup>b</sup>	0.35 <sup>ab</sup>	0.60 <sup>a</sup>	0.11 <sup>b</sup>	2.75 <sup>*</sup>
품위성	-0.16 <sup>a</sup>	-0.55 <sup>b</sup>	-0.23 <sup>ab</sup>	-0.07 <sup>a</sup>	3.46 <sup>*</sup>
현시성	0.08 <sup>a</sup>	0.38 <sup>a</sup>	0.25 <sup>a</sup>	0.39 <sup>a</sup>	2.78 <sup>*</sup>
귀염성	0.08 <sup>b</sup>	0.51 <sup>a</sup>	-0.32 <sup>c</sup>	-0.20 <sup>bc</sup>	8.49 <sup>**</sup>
경연성	-0.10	-0.06	-0.06	-0.24	0.59

\* : p < .05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표 7> 베레의 경우 무늬에 따른 이미지 차이

무늬 요인	무	유	t
매력성	.27	.24	.33
품위성	-.08	-.44	3.44 <sup>**</sup>
현시성	.22	.27	-.50
귀염성	-.05	.19	-2.08 <sup>*</sup>
경연성	-.17	-.06	-.91

\* : p < .05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2) 클로시의 이미지 차이

클로시 모자를 쓸 경우 헤어길이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8>에서 보면 현시성, 귀염성, 경연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헤어길이가 쇼트일 경우 수수하고 평범하며 성숙해보이고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헤어길이가 미디움일 경우는 약하고 수수하며 귀엽고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헤어길이가 롱일 경우는 쇼트와 미디움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시성 요인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 수수하고 평범하며, 성숙해보이고 드레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클로시 모자를 쓸 때 헤어길이가 미디움이면 귀엽고 스포티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으로, 헤어길이가 길면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성숙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클로시 모자를 쓸 경우 의복형태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9>에서 살펴보면 품위성을 제외한 요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형태가 원피스일 경우는 매력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하며 수수하고 드레시하며 성숙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상의/스커트 형태일 경우는 매력적이지 않고 수수하고 평범하며 성숙해보이지만 경연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상의/슬랙스 형태일 경우는 매력적이지 않고 수수하고 평범하며 딱딱

하고 여성스럽지는 않지만 귀염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 귀엽고 스포티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즉, 클로시 모자를 쓸 경우 원피스를 착용하면 매력있고 상의/스커트, 상의/슬랙스를 착용하면 매력이 없는 이미지로, 클로시 모자에 상의/스커트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지각되고, 상의/슬랙스나 원피스보다 더 수수하고 평범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클로시를 쓸 경우 의복과 모자 색상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10>에서 보면 경연성을 제외한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 귀염성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클로시 모자를 쓸 경우 의복과 모자색상이 무채색의 동색배색이면 매력적이고 품위있고 수수하고 평범하고 성숙한 이미지로 지각되고, 유채색의 동색배색이면 매력없고 평범하고 성숙하지만 품위있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또한 이색배색으로 유사배색이면 부드럽고 귀여운 이미지는 주지만 매력없고 품위없고 평범하고 수수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대비배색이면 품위있고 귀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클로시 모자를 쓸 경우 재질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11>에서 보면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딱딱한 재질인 경우 품위있고 귀여운 이미지로, 부드러운 재질의 경우 가장 귀엽고 스포티하고 부드럽고 따

<표 8> 클로시의 경우 헤어길이에 따른 이미지 차이

헤어길이 요인	쇼트	미디움	롱	F
매력성	-.26	.11	-.12	2.01
품위성	.25	.11	.11	.89
현시성	-.28 <sup>a</sup>	-.94 <sup>b</sup>	-.50 <sup>a</sup>	6.60 <sup>**</sup>
귀염성	-.02 <sup>b</sup>	.88 <sup>a</sup>	-.09 <sup>b</sup>	16.04 <sup>**</sup>
경연성	-.08 <sup>b</sup>	.46 <sup>a</sup>	.31 <sup>a</sup>	8.39 <sup>**</sup>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표 9> 클로시의 경우 의복형태에 따른 이미지 차이

의복형태 요인	원피스	상의/ 스커트	상의/ 슬랙스	F
매력성	.17 <sup>a</sup>	-.31 <sup>b</sup>	-.33 <sup>b</sup>	7.52 <sup>**</sup>
품위성	.23	.23	.06	1.19
현시성	-.32 <sup>a</sup>	-.70 <sup>b</sup>	-.33 <sup>a</sup>	4.59 <sup>*</sup>
귀염성	-.34 <sup>c</sup>	-.08 <sup>b</sup>	.61 <sup>a</sup>	28.65 <sup>**</sup>
경연성	.24 <sup>a</sup>	.36 <sup>a</sup>	-.16 <sup>b</sup>	8.71 <sup>**</sup>

\* : p < .05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표 10> 클로시의 경우 의복과 모자 색상에 따른 이미지 차이

요인	동색		이색		F
	무채색	유채색	유사배색	대비배색	
매력성	.15 <sup>a</sup>	-.01 <sup>a</sup>	-.36 <sup>b</sup>	-.40 <sup>b</sup>	5.10 <sup>**</sup>
품위성	.44 <sup>ab</sup>	.18 <sup>b</sup>	-.42 <sup>c</sup>	.49 <sup>a</sup>	17.94 <sup>**</sup>
현시성	-.51 <sup>b</sup>	-.34 <sup>b</sup>	-.02 <sup>a</sup>	-.95 <sup>c</sup>	11.88 <sup>**</sup>
귀염성	-.28 <sup>c</sup>	-.11 <sup>bc</sup>	.19 <sup>ab</sup>	.44 <sup>a</sup>	8.29 <sup>**</sup>
경연성	.16	.02	.35	.06	1.92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표 11> 클로시의 경우 재질에 따른 이미지 차이

재질 요인	딱딱한	부드러운	비치는	광택나는	F
매력성	-.09 <sup>a</sup>	-.12 <sup>a</sup>	.12 <sup>a</sup>	-1.17 <sup>b</sup>	9.93 <sup>**</sup>
품위성	.40 <sup>a</sup>	.03 <sup>ab</sup>	.03 <sup>ab</sup>	-.10 <sup>b</sup>	4.46 <sup>**</sup>
현시성	-.27 <sup>a</sup>	-.67 <sup>a</sup>	-.47 <sup>a</sup>	-.46 <sup>a</sup>	3.00 <sup>*</sup>
귀염성	.03 <sup>b</sup>	.46 <sup>a</sup>	-.68 <sup>c</sup>	.09 <sup>b</sup>	16.94 <sup>**</sup>
경연성	-.16 <sup>b</sup>	.36 <sup>a</sup>	.36 <sup>a</sup>	.38 <sup>a</sup>	8.14 <sup>**</sup>

\* : p < .05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뜻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비치는 재질의 경우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광택나는 재질일 경우 따뜻하고 여성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클로시 모자를 쓸 경우 무늬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12>에서 보면 베레의 무늬에 따른 이미지 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품위성과 귀염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무늬가 없는 것이 품위있고 부드러운 것으로 무늬가 있는 경우가 귀엽고 따뜻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나 최소유의차 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 볼리의 이미지 차이

모자종류가 볼리인 경우 헤어길이, 의복형태, 모자와 의복의 배색, 재질, 무늬 순으로 고찰하면 <표 13>~<표 17>과 같다

볼리 모자를 쓸 경우 헤어길이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13>에서는 보면 품위성, 현시성, 경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헤어길이에 관계없이 현시성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경연성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헤어길이 쇼트인 경우에 품위있고 딱딱한 것으로, 미디움일 경우는 가장 품위없고 현시적이며 딱딱하고 차가운 것으로 지각하고, 헤어길이 롱일 경우에는 품위없

<표 12> 클로시의 경우 무늬에 따른 이미지 차이

무늬	무	유	t
매력성	-.06	-.29	1.81
품위성	.33	-.05	3.54**
현시성	-.47	-.42	-.40
귀염성	-.04	.21	-2.20*
경연성	.18	.10	.70

\* : p < .05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표 13> 볼리의 경우 헤어길이에 따른 이미지 차이

헤어길이	쇼트	미디움	롱	F
매력성	-.20	-.12	-.13	.16
품위성	.20 <sup>a</sup>	-.62 <sup>b</sup>	-.03 <sup>a</sup>	4.84**
현시성	.10 <sup>b</sup>	.88 <sup>a</sup>	.01 <sup>b</sup>	3.87*
귀염성	-.13	.46	.03	2.42
경연성	-.28 <sup>a</sup>	-1.30 <sup>b</sup>	-.10 <sup>a</sup>	7.34**

\* : p < .05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리 모자를 쓸 경우 의복형태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14>에서 보면 품위성, 경연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피스인 경우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된 반면에 상의/스커트와 상의/슬랙스인 경우에 품위있고 단정하고 지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의복형태에 상관없이 경연성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딱딱하고 차가워 보이며 여성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상의/슬랙스를 착용할 때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베레, 클로시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로 상의/슬랙스를 착용할 경우는 모자유형에 따른 이미지보다 의복유형의 이미지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볼리 모자를 쓸 경우 의복과 모자 색상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15>에서 살펴보면 품위성, 현시성, 경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무채색의 동색 배색일 때 가장 품위가 있고 딱딱하고 차가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채색의 동색배색일 때 가장 품위없고 딱딱하지만 대담하고 화려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색의 유사배색일 경우 품위있고 수수하고 은은한 것으로, 이색의 대비배색일 경우는 품위있고 대담하고 강렬하지만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경연성 차원에서는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유사배색인 경우 가장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무채색으로 동색일 경우

<표 14> 볼리의 경우 의복형태에 따른 이미지 차이

의복형태	원피스	상의/스커트	상의/슬랙스	F
매력성	-0.09	-0.34	-0.06	2.18
품위성	-0.23 <sup>b</sup>	0.19 <sup>a</sup>	0.22 <sup>a</sup>	6.49**
현시성	0.27	-0.01	0.03	1.99
귀염성	-0.17	-0.08	0.16	2.81
경연성	-0.04 <sup>a</sup>	-0.13 <sup>a</sup>	-0.55 <sup>b</sup>	6.34**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표 15> 볼리의 경우 의복과 모자 색상에 따른 이미지 차이

색상	동색		이색		F
	무채색	유채색	유사배색	대비배색	
매력성	-.12	-.31	-.10	-.13	.63
품위성	.35 <sup>a</sup>	-.39 <sup>b</sup>	.11 <sup>a</sup>	.17 <sup>a</sup>	7.92**
현시성	-.02 <sup>bc</sup>	.44 <sup>a</sup>	-.25 <sup>c</sup>	.20 <sup>ab</sup>	6.08**
귀염성	-.28	-.01	.03	.14	2.42
경연성	-.62 <sup>b</sup>	-.12 <sup>a</sup>	-.05 <sup>a</sup>	-.17 <sup>a</sup>	4.41**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가장 딱딱한 차가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블러 모자를 쓸 경우 재질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16>에서 살펴보면 매력성을 제외한 4가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딱딱한 재질일 경우 품위있고 성숙하고 딱딱하고 차갑고 여성스럽지 않은 것으로, 부드러운 재질일 경우 품위있고 은은하며 수수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비치는 재질일 경우 가장 품위있고 대담하고 화려하며 나이들어 보이고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광택나는 재질인 경우 가장 품위없고 화려하고 강렬하며 귀엽고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블러 모자를 쓸 경우 무늬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17>에서 보면 품위성과 현시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무늬가 없을 때 품위있고 수수하고 평범한 것으로, 무

<표 16> 블러의 경우 재질에 따른 이미지 차이

재질 요인	딱딱한	부드러운	비치는	광택나는	F
매력성	-.26	-.05	-.09	-.26	.87
품위성	.28 <sup>a</sup>	.03 <sup>a</sup>	.31 <sup>a</sup>	-.50 <sup>b</sup>	7.78**
현시성	.03 <sup>b</sup>	-.23 <sup>b</sup>	.42 <sup>a</sup>	.70 <sup>a</sup>	11.30**
귀염성	-.14 <sup>ab</sup>	.20 <sup>a</sup>	-.46 <sup>b</sup>	.00 <sup>a</sup>	4.94**
경연성	-.62 <sup>b</sup>	.01 <sup>b</sup>	.06 <sup>b</sup>	-.25 <sup>ab</sup>	7.30**

\* : p < .05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표 17> 블러의 경우 무늬에 따른 이미지 차이

무늬 요인	무	유	t
매력성	-.17	-.16	-.04
품위성	.22	-.17	3.29**
현시성	-.06	.31	-2.96**
귀염성	-.06	.01	-.52
경연성	-.25	-.23	-.14

\* : p < .05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표 18> 캐플린의 경우 헤어길이에 따른 이미지 차이

헤어길이 요인	쇼트	롱	F
매력성	-.13	.26	12.35**
품위성	.07	-.08	1.39
현시성	.25	-.02	6.04*
귀염성	-.36	.19	20.96**
경연성	.08	.35	4.93*

\* : p < .05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늬가 있을 때는 대담하고 화려하고 품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캐플린의 이미지 차이

모자종류가 캐플린인 경우 헤어길이, 의복형태, 모자와 의복의 배색, 재질, 무늬 순으로 고찰하면 <표 18>~<표 22>과 같다.

캐플린 모자를 쓸 경우 헤어길이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18>에서 살펴보면 품위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헤어길이가 쇼트일 경우 대담하고 성숙한 이미지로, 헤어길이가 롱일 경우는 매력있고 귀엽고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캐플린 모자를 쓸 경우 의복형태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19>에서 보면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형태가 원피스일 경우 매력적이고 대담하고 화려하고 부드럽고 여성스럽지만 품위는 없고 나이들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스커트일 경우는 품위있고 부드럽고 여성스럽지만 매력없고 수수하며 성숙한 것으로, 상의/슬랙스의 경우는 매력있고 품위있고 현시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캐플린 모자를 쓸 경우 의복과 모자 색상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20>에서 보면 경연성 요인에서만 유의한

<표 19> 캐플린의 경우 의복형태에 따른 이미지 차이

의복형태 요인	원피스	상의/ 스커트	상의/ 슬랙스	F
매력성	.23 <sup>a</sup>	-.11 <sup>b</sup>	.06 <sup>ab</sup>	3.13*
품위성	-.23 <sup>b</sup>	.17 <sup>a</sup>	.05 <sup>ab</sup>	3.42*
현시성	.53 <sup>a</sup>	-.28 <sup>c</sup>	.09 <sup>b</sup>	19.34**
귀염성	-.32 <sup>b</sup>	-.16 <sup>b</sup>	.23 <sup>a</sup>	7.16**
경연성	.41 <sup>a</sup>	.53 <sup>a</sup>	-.30 <sup>b</sup>	20.57**

\* : p < .05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표 20> 캐플린의 경우 의복과 모자 색상에 따른 이미지 차이

색상 요인	동색		이색		F
	무채색	유채색	유사배색	대비배색	
매력성	-.04	.03	.26	.00	1.48
품위성	.25	-.21	-.06	.01	2.19
현시성	.12	.07	.18	.09	.18
귀염성	-.14	-.10	.00	-.08	.23
경연성	-.15 <sup>b</sup>	.45 <sup>a</sup>	.21 <sup>a</sup>	.35 <sup>a</sup>	4.78**

\*\* : p < .01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표 21〉 캐플린의 경우 재질에 따른 이미지 차이

재질 요인	딱딱한	부드러운	비치는	F
매력성	.00 <sup>b</sup>	.02 <sup>b</sup>	.43 <sup>a</sup>	3.08 <sup>*</sup>
품위성	.33 <sup>a</sup>	-.13 <sup>b</sup>	-.48 <sup>b</sup>	9.59 <sup>**</sup>
현시성	.16	.01	.41	2.79
귀염성	-.29 <sup>b</sup>	.19 <sup>a</sup>	-.55 <sup>b</sup>	11.10 <sup>**</sup>
경연성	-.29 <sup>c</sup>	.37 <sup>b</sup>	1.09 <sup>a</sup>	33.76 <sup>**</sup>

\* : p &lt; .05 \*\* : p &lt; .01

(L.S.D 검정결과 p &lt;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gt;b&gt;c로 표시)

〈표 22〉 캐플린의 경우 무늬에 따른 이미지 차이

무늬 요인	무	유	t
매력성	.11	.01	.87
품위성	.11	-.12	1.74
현시성	-.09	.32	-3.74 <sup>**</sup>
귀염성	.15	-.31	3.84 <sup>**</sup>
경연성	-.01	.44	-3.80 <sup>**</sup>

\*\* : p &lt; .01

(L.S.D 검정결과 p &lt;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gt;b&gt;c로 표시)

차이가 나타났다. 유채색의 동색배색인 경우와 이색인 유사배색과 대비배색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부드럽고 따뜻하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지각하였고, 의복과 모자색상이 무채색으로 동색인 경우 가장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캐플린 모자를 쓸 경우 재질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21>에서 살펴보면 현시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딱딱한 재질일 경우 품위있고 나이들어보이고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부드러운 재질일 경우 가장 귀엽고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비치는 재질의 경우 품위는 없지만 가장 드레시하고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무늬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표 22>에서 살펴보면 현시성, 귀염성, 경연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무늬가 있는 것이 화려하고 드레시하며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무늬가 없는 것이 귀여운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최소유의차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모자종류별 무늬에 따른 이미지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스타일별 패션이미지의 요인구조를 밝히고, 모자와 패션이미지 차원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패션컬렉션에서 빈도수가 높은 모자 4가지 베레, 클로시, 볼러, 캐플린을 기준으로 헤어길이, 의복형태, 의복과 모자 색상과의 배색관계, 의복과 모자의 재질, 무늬 유무에 변화를 준 96개의 자극물을 선정한 후 이들 자극물에 대한 패션이미지 차원을 밝히고자 31쌍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한 결과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 귀염성, 경연성의 5개 차원으로 도출되었다.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종류별로 조형성에 따른 패션 이미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조형성에 따라 패션 이미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베레 모자를 쓸 경우 헤어길이가 롱 또는 미디움이고 색상이 동색의 무채색이거나 이색의 유사배색이고 비치는 재질일 때 매력적인 이미지로, 헤어길이가 쇼트이고 상의/슬렉스를 착용하면 품위있는 이미지로, 색상은 동색의 유채색이거나 이색의 대비배색이고 팽택이 있거나 부드러운 재질일 때 현시성이 높고, 헤어길이가 롱이고 의복형태가 상의/스커트나 상의/슬렉스이고 부드러운 재질과 무늬있는 재질일 때 귀여운 이미지로, 헤어길이가 롱, 미디움이고 원피스나 상의/스커트를 착용하고 이색의 유사배색과 부드러운 재질일 때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클로시 모자를 쓸 경우 의복형태가 원피스로 동색의 무채색이고 비치는 재질일 때 매력적인 이미지로 동색의 무채색이거나 이색의 대비배색이고 딱딱한 재질과 무늬가 없을 때 품위있는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조형적 요소에 상관없이 클로시 모자를 쓸 경우 현시성이 낮게 지각되었으며 특히 헤어길이가 미디움이고 의복형태가 상의/스커트일 때 이색의 대비배색과 부드러운 재질일 때 이러한 이미지가 강하였다. 헤어길이가 미디움이고 의복형태가 상의/슬렉스이고 이색의 대비배색과 유사배색일 때 부드러운 재질과 무늬가 있는 경우 귀여운 이미지로, 헤어길이가 미디움 또는 롱이고 상의/스커트를 착용하고 팽택이 있거나 부드러운, 비치는 재질일 때 따뜻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지각되는 차이를 보였다.

볼러 모자를 쓸 경우 조형적 요소에 상관없이 매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볼러 모자가 매력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길이가 쇼트이고 의복형태가 상의/스커트나 상의/슬렉스이고, 동색의 무채색이거나 이색의 유사나 대비배색일 때 비치는 재질과 무늬없는 경우 품위있는 이미지로 지

각되었다. 헤어길이가 미디움이고 동색의 유채색이 광택 나거나 비치는 재질과 무늬있는 재질일 때 현시성이 높아 대담하고 특이한 이미지로, 부드럽고 광택나는 재질은 귀여운 이미지로, 헤어길이가 미디움이고 상의/슬렉스를 착용할 때와 동색의 무채색이고 딱딱한 재질일 때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캐플린 모자를 쓸 경우 헤어길이가 롱이고 원피스, 상의/슬렉스를 착용하고 이색의 유사배색과 비치는 재질일 때 매력적인 이미지로, 헤어길이가 쇼트이고 원피스를 착용할 때 비치거나 딱딱한 재질과 무늬가 있는 경우 현시성이 높고 헤어길이가 롱이고 상의/슬렉스를 착용할 때 부드러운 소재와 무늬가 없는 경우 귀여운 이미지로, 헤어길이가 쇼트보다 롱이고 상의/스커트, 원피스 착용과 동색의 유채색이나 이색의 대비배색, 비치는 소재와 무늬가 있는 경우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모자의 종류와 의복의 조형적 요소에 따라 모자 착용자의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고 동일한 모자를 착용하더라도 헤어스타일 및 의복의 조형적 요소의 특징에 따라 이미지가 달리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자의 종류, 헤어스타일, 의복의 조형적 요소들이 상호작용으로 통합되어 이미지가 지각됨으로서 이미지 평가 시 각각의 정보가 갖는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고 한 Asch(1946)의 형태주의적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자는 작은 부분이지만 패션이미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착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7년간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패션의 코디네이션 아이템 중 모자를 착용한 패션스타일을 통해 지금까지 패션이미지 평가에서 다루지 않았던 모자종류를 헤어길이, 의복형태, 의복과 모자의 색상과의 배색, 재질과 무늬 등의 조형성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험자들 여대생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다루지 못하였으며, 자극물 선정 시 패션컬렉션의 조사 범위가 제한되었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모자 착용자의 이미지를 다각도로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다양한 모자종류와 의복의 조형적 요소는 물론 얼굴 형태나 체형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토털 코디네이션 측면에서 효과적인 이미지 메이킹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패션 컬렉션, 조형성, 패션이미지, 이미지 평가

## 참 고 문 헌

- 김경희 (1990) 여성용 모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지자 (1996) Texture와 Color Coordination의 감성공학 적 Technology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애경 (2003)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Head Image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휴 (1996)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자 (1976) 현대 한국 여자 모자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2002) 패션감성과 감정에 대한 의복조형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 색, 톤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 395-406.
- 김윤경, 이경희 (2000)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6), 861-872.
- 도주연 (1991)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조경자, 장준익, 김길남 (1997) 직물디자인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감성어휘모형. 감성과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3-68.
- 박혜경 (1991) 모자에 활용된 섬유유제에 관한 연구-현대 여성용 모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화순 (1995) 성격특성에 따른 색채의 속성별 의복색 선호도. 복식, 26, 87-99.
- 서희정 (2000) Millinery Design의 특성과 시대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해순, 이경희 (2002) 의복재질의 시각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9/10), 1412-1423.
-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지성 (2000)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순, 김희섭 (1998)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180-183.
- 이경희 (1991)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1111-1121.
- 이영미 (1997) 넥라인과 헤어스타일이 얼굴이미지 및 형태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6(4), 13-25.
- 이웅휘, 강경자 (1997) 원피스드레스의 소매와 스커트 폭

- 길이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6), 1060-1071.
- 이은영 (1983)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 이주현, 강혜원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984-994.
- 이주현, 조공호 (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제1보):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임남영, 강승희 (2003)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3), 340-351.
- 정혜선, 강경자 (2004a) 헤어스타일, 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3/4), 460-471.
- 정혜선, 강경자 (2004b) 상의색과 모자색,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2(3), 354-368.
-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경, 강경자 (2003)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폭의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4), 459-473.
- 추선형, 김영인 (2002) 패션 소재의 색채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2), 193-204.
- Asch, S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3).
- Davis, ML (1987)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Lennon, SJ, Miller, FG (1984-1985) Attire, physical appearance, and first impressions: More is l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3(1), 1-8.
- Pancer, SM, Meindle, JR (1978) Length of Hair and Beard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6, 1328-1330.
- Terry, RL, Davis, AR (1976) Components of Fa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2, 918.
- Thurston, JL, Lennon, SJ, Clayton, RV (1990)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 139-150.
- Winakor, G, Navarro, R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2), 40-48.
- Yukie Kato (1995) Effective Factors for the Impression of Three-Color Desig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249-259.
- 山野清一郎, 尹藤純子, 牧眞理子 (1980) イメージ用語によるシルエットの分類(4). *繊維製品消費科学誌*, 21(8), 341-347.
- 加藤雪枝 (1982) ブラウスの衿のイメージに反ばす形態反て色の効果. *繊維製品消費科学誌*, 23(4), 159-164.

(2006. 07 .03 접수; 2006. 11. 02 채택)